
일제강점기 고분 조사자료의 검토, 그리고 활용*

- 백제 왕릉 최신 재조사 성과와 비교하여 -

김 환 희**

목 차

I. 머리말

II. 일제강점기 고분 조사자료의 검토

-최근 재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조사자료의 검토
2. 부여 왕릉원 조사자료의 검토

III. 일제강점기 고분 조사자료의 활용

-성공적인 발굴조사를 위하여-

1. 사전조사 단계에서의 활용
2. 발굴조사 단계에서의 활용

IV. 맺음말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 이 글은 2022년에 개최한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학예연구사

국문초록

일제강점기에 고적조사사업의 명목으로 진행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및 부여 왕릉원의 조사는 백제 웅진~사비기 왕릉원의 본격적인 첫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조사는 짧은 기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략한 기록만이 남아 있지만, 당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초자료로써 중요하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백제 고분 조사자료의 재보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분석하여 당시 유적의 모습을 보완하고 복원하는 중요한 접근이 된다.

최근 진행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과 부여 왕릉원 4호분의 재조사에서도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이 활용되었다. 도면과 사진자료를 통해 고분의 대략적인 위치와 규모 등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수치지형도 및 항공사진과의 정합 과정을 거쳐 고분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였다. 또한 발굴조사 단계에서도 조사내용의 검토를 통해 조사 방법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는 과거의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과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인지하여 현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제강점기 자료는 발굴조사 전 단계에 걸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조사를 위해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Ⅰ 주제어 Ⅰ

일제강점기, 공주, 부여, 왕릉원, 활용

I. 머리말

때때로 목적은 의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곤 한다.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고적조사 사업의 경우에도 한반도 내 주요 유적에 대한 조사라는 목적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처럼 목적보다 의도가 앞선 당시 사업은 짧은 조사기간, 소략한 조사기록, 출토유물의 소재 불분명 등 아쉬운 결과를 도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당시의 의도를 걷어내고 본래 목적을 바로 세워 과거의 문화를 규명하는 올바른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한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잠시 뒤로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유적의 본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자료가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도 국립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되었던 조사자료에 대한 재보고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백제시대 고분 조사자료의 재보고 성과(국립공주박물관 2014, 2015, 2017; 국립부여박물관 2018, 2019; 국립전주박물관 2015; 국립중앙박물관 2015)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부여 왕릉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익산 쌍릉 등 백제 고분의 재조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a, 2021b;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9, 2020, 202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와 연결되어 상호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조사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행되는 원천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조사자료 재보고 성과는 중요한 자료로 제공 및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재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새로운 자료의 확보와 기존 자료의 재검토 성과는 일제강점기 조사내용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유의미한 작업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최초 조사내용과 최근 재조사가 진행된 백제시대 고분의 조사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양자간에 보완점을 마련함으로써 조사 성과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고분의 보다 효율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일제강점기 고분 조사자료의 검토

- 최근 재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백제 고분의 조사가 체계적인 방법과 충분한 일정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상당 부분 누락되어 소략하게 남아 있는 조사기록과 몇 장의 사

진만으로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사과정과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남아 있는 사진과 도면의 경우에도 대부분 현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연도와 묘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이는 곧 고분의 전체적인 축조 프로세스나 그 안에 담긴 매장양식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다. 결국 자료의 공백은 실물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추론해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기 보고된 조사자료의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당시 보고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당시 조사 과정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조사내용을 검증하고, 당시 관찰하지 못했거나 누락되었던 자료를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최초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최근 재조사가 진행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 부여 왕릉원 4호분의 조사 내용을 상호 비교·검증하여 조사 성과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조사자료의 검토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위치와 성격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¹⁾ 이에 대한 실물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첫 기록은 1927년 3월 가루베 지온(輕部慈恩)이 고분 4기(現 1~4호분)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이다. 고분 발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는 1927년 10월에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1호분과 3~4호분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고분의 출입시설과 봉분을 복원하는 등 관리를 위한 정비작업도 실시하였다. 이후 1932년에는 도로를 개설하던 중 1~4호분의 남쪽에서 7~8호분의 존재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남서쪽 구릉에서는 5호분의 천장석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축 배수로가 일부 추가로 발견되어 6호분의 존재도 파악하였다. 6호분의 발굴조사는 1933년 7월 가루베 지온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8월에 다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정식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6호분을 지나는 통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29호분이 가루베 지온에 의해 발견²⁾되었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는 29호분의 확인을 위해 같은해 11월 발굴조사를 실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공주목(公州牧)에 송산리고분군이 백제 왕릉으로 전해진다”

2) 가루베 지온은 조사단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29호분 출토품 유물카드에 ‘輕部慈恩 私掘’이라고 기록된 점, 석실 내부에 유물을 뒤진 흔적이 뚜렷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볼 때, 조선총독부 박물관 조사 이전에 손을 댔던 것으로 추정된다(국립공주박물관 2015: 145).

시하였다(국립공주박물관 2015).

표 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조사현황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 내용
1927년 3월	輕部慈恩	1~4호분 발견
1927년 10월 15~23일	조선총독부 박물관	1, 3~4호분 조사
1932년 10월 20일	輕部慈恩	유람도로 신설 중 5호분 조사
1932년 10월 26일	輕部慈恩	6호분 전축 배수구 일부 발견
1932년 10월 27일	輕部慈恩	8호분 발견
1932년 11월 14일	輕部慈恩	7호분 발견
1933년 7월 29일	輕部慈恩	6호분 발굴조사
1933년 8월	조선총독부 박물관	6호분 발굴조사
1933년 8월	輕部慈恩	6호분 지나는 분기로 설치 중 29호분 발견
1933년 11월 15~24일	조선총독부 박물관	29호분 발굴조사
1971년 7월 8~9일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6호분 배수로 공사 중 무령왕릉 발견, 조사
1971년 8월 17~29일	무령왕릉 종합조사단	분구의 원형과 축조방법 조사
1971년 9월 14~21일	무령왕릉 종합조사단	묘도 전단부와 배수구 말단시설 조사
1971년 10월 26~28일	무령왕릉 종합조사단	연도 입구 노출, 현실 바닥 기초구조 조사
1988년 6월~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방단적석유구(A·D지구) 조사
2018년 6월~12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방단적석유구(A·D지구) 재조사
2021년 3월~7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9호분 재조사

왕릉원 내 조사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1년 6호분의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3). 이후 1988년에는 방단적석유구(A·D지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尹根一 1988), 유구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2018년에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왕릉원 내 고분의 본격적인 조사는 2019년부터 다시 추진되는데, 2021년까지 고분 분포 현황조사, 라이다측량, 지하물리탐사(최희수·박준형·이찬희 2021) 등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2021년에는 29호분의 재조사를 실시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a).

최근 재조사가 완료된 29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보고되었던 조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물리탐사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후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최근 조사자료의 상호 검증을 통해 고분의 본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판단되어 29호분의 조사 성과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강점기 조사와 최근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 조사내용 비교
(有光敎一 外 2002: 29-3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a)

구조		조사 내용	
		1933년	2021년
봉분		완전히 유실되어 알 수 없음	
현실	규모	동서 2.72m, 남북 3.39m, 잔존 평균 높이 1.90m	(바닥면 기준) 동서 1.95~2.65m, 남북 3.35~3.50m, 잔존 높이 0.5~1.9m
	천장	천장석은 모두 유실, 궁륭상 천장으로 추정	
	벽	사암과 화강암을 벽돌 형태로 깎아 쌓고, 석회를 발라 마무리	정비과정에서 동벽 일부 유실 바닥에서 1.25m까지 수직으로 쌓고, 그 위로는 내만하게 축조
	바닥	삿자리 모양으로 벽돌을 깔고, 네 번에는 삼각형 벽돌을 배치	벽돌 일부 유실
	관대	각 관대는 동벽과 서벽에 접하여 벽돌을 3단으로 쌓아 제작. 관대 윗면, 벽돌 사이는 석회를 발라 마무리 (동쪽) 길이 약 2.6m, 폭 0.95m, 높이 15cm (서쪽) 길이 1.69m, 폭 1.0m, 높이 15cm	(동쪽) 길이 2.55~2.57m, 폭 0.95m, 높이 14~15cm (서쪽) 길이 1.60~1.65m, 폭 1.0m, 높이 14~15cm 벽돌은 형태, 명문 등 상관없이 사용
연도	규모	길이 1.8m 폭 0.9m, 높이 1.2m	길이 1.5~1.65m. 너비 0.85~0.95m, 잔존 최대 높이 0.85m
	벽	석재를 쌓고 석회를 바름	정비과정에서 동벽 일부 유실
	천장	천장석 1매 확인	정비과정에서 천장석 위치 이탈
	바닥	벽돌을 삿자리 모양으로 깔고, 그 위로 배수구 축조	
	연문	2개 확인(추가장 관련 행위로 추정)	연문 폐쇄전은 확인되지 않음
묘도	규모	-	길이 2.1~2.2m, 너비 0.6~1.0m, 잔존 최대 높이 0.6m
	벽		별다른 시설 없이 양쪽 벽을 수직에 가깝게 굴광
유물		금제, 은제, 금동제, 장신구류, 관정, 장식금구 등	반구형원두정 2점, 현문 폐쇄전돌 일괄(명문벽돌 출토: 조차 시 건업인야)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조사내용은 백제시대 다른 고분들의 조사내용에 비해 상당히 자세한 편이다. 실제로 조사내용이 각 구조별로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도면의 경우에도 평면도와 단면도까지 작성되어 29호분의 구조와 규모 등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한 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도 많은 편(약 24매)이어서 원천자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김환희·이아은 2021b: 355-356). 이러한 원천자료를 바탕으로 추진한 2021년 재조사 결과도

일제강점기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고분의 세부적인 축조공정을 파악하고 정밀한 규모를 산출하는 등 보완적인 조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a)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치밀한 복원을 위한 정밀자료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조사내용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유물의 확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재조사에서는 29호분의 현문을 폐쇄했던 벽돌을 전량 수습하여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벽돌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양과 명문이 새겨진 벽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가 새겨진 명문 벽돌 1점이 주목된다. 이는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 출토된 명문 벽돌과의 연관성(명문의 내용 및 위치, 벽돌의 형태 및 문양 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담고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김환희 2022: 133).

2. 부여 왕릉원 조사자료의 검토

부여 왕릉원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일본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답사가 있었던 곳이다. 아마 당시에도 이곳이 백제시대 고분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부여 왕릉원의 조사와 관련된 첫 기록은 1914년 3월 후지이 겐지(藤井鏗治)가 이 일대를 답사하면서 고분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는 1915년 7월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등의 조사단을 파견하여 2호분(중하총)³⁾, 3호분(서하총)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등의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하여 5호분(중상총)과 3호분의 발굴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고적조사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1917년에는 중앙고분군에서 1호분(동하총), 5호분(동상총), 4호분(서상총)을, 서고분군에서는 9호분과 10호분의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1938년 4월에는 동고분군에서 5기의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각 고분들의 구조와 규모 등을 파악하였다.

이후 부여 왕릉원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다가 1965~1966년 왕릉원 내 대대적인 보수정비 공사가 실시되면서 지형의 상당한 개변이 이루어진다. 작고 낮은 구릉들은 삭평하고 낮은 곡부는 메우면서 평탄한 대지를 마련하였는데, 그나마 남아 있던 봉분들마저도 해체하고 다시 조성하는 등 경관의 훼손이 발생하였다(부여군 2017: 66). 한편 이 과정에서 7~8호분이

3) 부여 왕릉원 내 고분들의 호수는 기록마다 차이가 확인된다. 고분들의 상대적 위치를 토대로 동하총, 중하총, 서하총, 동상총, 중상총, 서상총으로 명명되거나, 임의로 호수를 부여하여 1~6호분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인지의 용이성을 위하여 호수를 앞에, 위치명을 뒤에 병기하고자 한다.

표 3. 부여 왕릉원 조사현황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 내용
1915년 7월 9~16일	조선총독부 박물관 (黑板勝美 등)	2호분(중하층), 3호분(서하층) 발굴조사
1915년 7월 15~19일	조선총독부 박물관 (關野貞 등)	5호분(중상층), 3호분(서하층) 발굴조사
1917년 11월	谷井齊一, 小場桓吉, 小川敬吉, 野守建	1호분(동하층), 6호분(동상층), 4호분(서상층), 서고분군에서 9~10호분 발굴조사
1938년 4월 3~15일	梅原末治, 澤俊一, 鏡山猛, 岡崎卯一	동고분군 5기 확인
1966년 2월 14일	홍사준, 김원룡, 강인구, 최완수	중앙고분군 7, 8호분 긴급 조사
2016년 1~5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서고분군 시굴조사
2016년 6~11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서고분군 1~2호분 발굴조사 및 재조사(일제강점기 8호분, 10호분)
2017년 3~8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서고분군 4호분 발굴조사 (일제강점기 7호분)
2018년 3~6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서고분군 3호분 재조사 (일제강점기 9호분)
2020년 10~12월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중앙고분군 탐색갱 시굴조사
2021년 5~6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동고분군 1호분 일대 시굴조사
2021년 9~12월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4호분(서상층) 재조사
2021년 7월 ~ 2022년 5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동고분군 1호분 재조사, 6호분 발굴조사
2022년 3~8월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3호분(서하층) 재조사

발견되어 1966년 2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왕릉원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수정비공사가 이루어져 봉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고분 자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왕릉원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일부 시굴조사만이 진행되었다. 이후 부여 왕릉원은 2016년 서고분군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조사가 진행되었다.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해 고분 4기를 재확인하고 개별 고분들의 규모, 구조, 축조방식 등을 규명하였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9;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고분군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중앙고분군의 본격적인 재조사에 앞서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하여

매장주제부와 호석의 위치 등을 파악한 후 전체적인 고분의 배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0). 그 결과 지형의 개변을 비롯하여 현재 정비된 고분의 위치와 규모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존에 정비된 고분들의 단계별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1년에는 4호분의 재조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3호분의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재조사 결과 일제강점기에 보고되지 않았던 매납시설, 봉분의 축조방식 등의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였고, 기존에 보고되었지만 기록이 미비한 부분들은 충실히 보완하여 당시 고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 2022). 한편 2021년에는 동고분군에서 일제강점기에 보고되었던 1호분 일대의 조사도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분 1기(6호분)도 새롭게 확인되어서(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2), 향후에도 부여 왕릉원에서 추가 고분의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고분군 내 고분의 재조사는 4호분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재조사 대상으로 4호분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고분들에 비해서 조사내용과 사진자료가 매우 소략한 편이고, 도면조차 제시되지 않아 규모도 알 수 없으며 대략적인 구조만 알려져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형도와와의 비교 검토와 시굴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정비된 봉분의 위치가 백제시대 봉분의 위치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관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가장 먼저 제기된 곳이다. 이에 따라 4호분의 일제강점기 조사내용과 최근 조사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해 4호분의 조사 성과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강점기 조사와 최근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언급하였던 것처럼 4호분의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현실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연도와 묘도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과 도면도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국립중앙박물관 2015: 117-118).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4호분의 재조사 성과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고분의 구조와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는 점,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매납시설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봉분의 축조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묘광에서 확인되는 재굴광 흔적을 통해 매장 과정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묘도 바닥에서 확인되는 매납시설 2기와 그 안에서 출토된 토기를 통해 시기와 장례문화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 2022).

표 4. 부여 왕릉원 4호분 조사내용 비교

(국립중앙박물관 2015: 117-11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

구조		조사 내용	
		1917년	2021년
봉분		규모 미상, 호석 有	규모 미상, 호석 유실, 잔존 봉분 확인(축조방식 파악)
현실	규모	-	동서 1.24m, 남북 2.71~2.72m, 높이 1.6m
	구조	평면 장방형, 평사천장, 현문(1매의 판석)	
	벽	잘 다듬은 1~3매의 판석 사용	벽화 및 먹선 확인되지 않음
	바닥	-	관대 無
연도	규모	-	길이 1.24m, 너비 0.99~1.1m, 높이 1.09~1.2m
	구조	중앙 연도, 문틀식 구조, 연문(1매의 판석)	
	벽	1매의 판석	
	바닥	1매의 판석	
묘도	규모	-	길이 약 11.6m, 너비 약 2~4m, 잔존 깊이 약 2.5m
	벽		별다른 시설 없이 양쪽 벽을 수직에 가깝게 굴광
	시설		배수시설 無, 매납시설 2기(토기 2점), 묘도 인근 양벽 및 바닥에 소형 수혈
유물		목관편, 금동제 화형받침쇠, 관정 등	목관편

Ⅲ. 일제강점기 고분 조사자료의 활용

- 성공적인 발굴조사를 위하여 -

고분이라는 유구의 특성상 대개 구릉에 입지하고 있어서 경관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곤 한다. 특히나 지상에 노출된 봉분은 고분의 규모와 위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매장 당시에 축조된 봉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실되거나 후대 개발, 정비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당시의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매장주체부도 외부로 노출되어 석재가 유실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고분의 존재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일부 정비된 고분의 경우에도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축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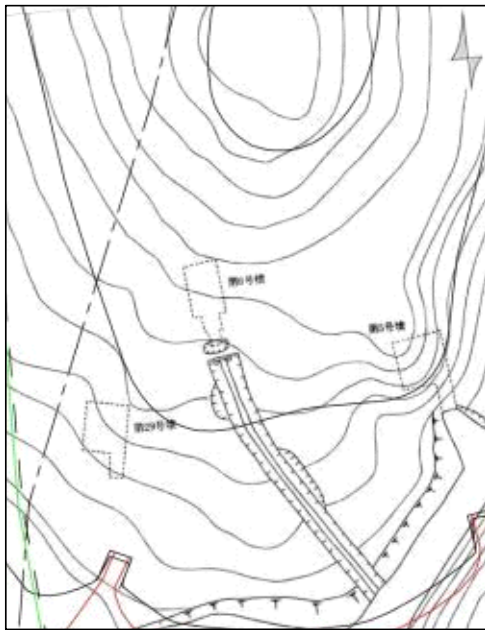
후 이를 근거로 정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고분의 조사기록은 재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한 후 현재 모습과 비교를 실시하고 고분의 위치와 규모 등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을 통해 당시 조사과정과 내용 등을 파악한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탐색갱을 설치하고 추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양질의 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이 발굴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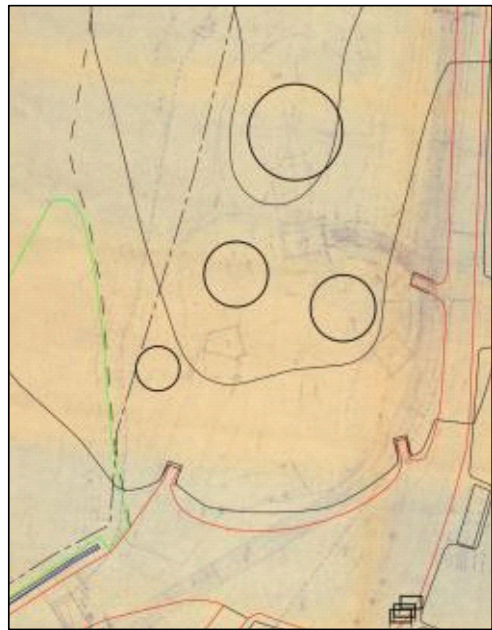
1. 사전조사 단계에서의 활용

일반적으로 고분의 조사는 봉분의 범위와 매장주체부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이를 중심으로 탐색갱을 설치하고 제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고분의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지형의 변화 양상, 봉분의 규모와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장 유용한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이다. 당시 조사기록에는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현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자료와 측량을 기반으로 한 도면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지형의 모습과 정확한 위치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정비된 고분들과의 비교 검토가 가능한데, 언급하였다시피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과 부여 왕릉원은 대부분 정비가 이루어져 고분의 위치와 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 특히 도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각 왕릉원 내 고분의 위치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의 위치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도면에는 29호분의 위치 뿐만 아니라 석실의 대략적인 구조도 기록되어 있다. 도면을 통해 본 29호분의 위치는 6호분의 남서쪽에 있으며, 매장주체부 중앙을 기준으로 약 11.7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현실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우편제 연도를 가졌던 석실의 구조도 파악이 가능하다(김환화·이나은 2021a). 이처럼 조사 이후 29호분은 도면에 구조와 정확한 위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다른 고분들처럼 중요 고분으로 인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령왕릉, 5~6호분이 위치한 남서쪽 구릉의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29호분은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봉분의 형상이 갖춰지지 못했고,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정확한 위치조차 인지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다만 1970년대 정비 도면에서 29호분의 위치가 표시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도 29호분에 대한 위치 정보는 지속되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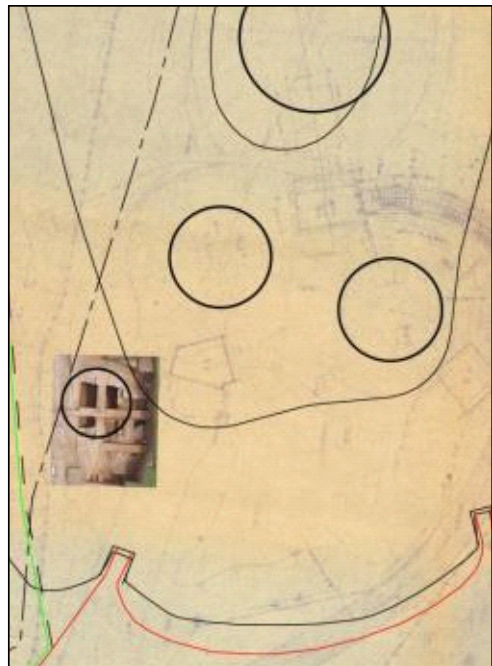
① 일제강점기 고분 배치도



② 1970년대 정비 도면



③ 5~6호분, 무령왕릉 누수방지층 현황



④ 29호분 위치 추정
(①+②+③ 합성을 통한 위치 확인)

사진 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 위치 추정(김환희·이나은 2021b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거의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29호분의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였다. 먼저 현재의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의 정합 과정을 거쳐 사진에 정보 데이터를 반영하였다. 이후 고분이 표시된 일제강점기 배치도와 1970년대 정비 도면 등을 정합하여 29호분의 위치를 특정하였다(사진 1). 여러 자료들의 정합을 통해 29호분은 6호분(매장주체부 중앙 기준)에서 서쪽으로 6.6m, 남쪽으로 9.6m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김환희·이냐은 2021b: 356). 이러한 위치 추정 결과는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 29호분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전조사 단계에서 일제강점기 자료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상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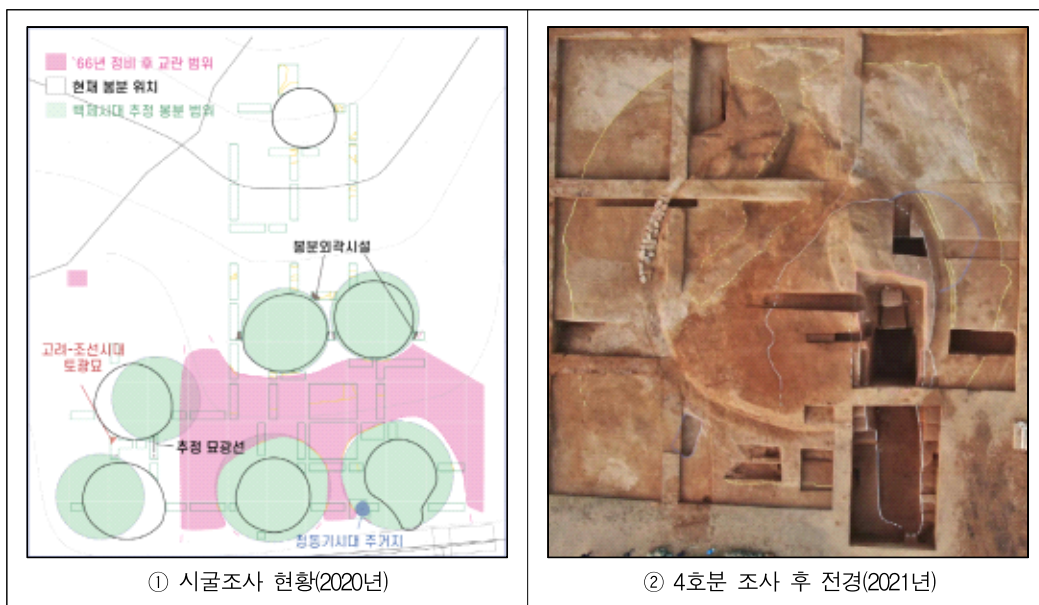


사진 2. 부여 왕릉원 4호분 위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부여 왕릉원 4호분의 위치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중앙고분군 내 고분들의 위치가 어딘지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배치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배치도에는 정비 이전의 지형 정보가 자세하게 남아 있는데, 6기의 고분들이 위치한 곳은 바깥으로 돌출된 작은 구릉의 끝단에 해당한다. 또한 고분들 사이는 안으로 내만한 지형이어서 분리된 공간의 구획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후 부여 왕릉원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1960~1970년대 항공사진들이 있다. 당시 보수정비과정을 거치면서 고분의 위치와 규모 등에 변화가 관찰되는데, 고분들의 위치를 보면 일제강점기 도면에는 3~4호분이 사선(4호분은 동쪽, 3호분은 서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정비 이후 항공사진에서는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다. 다른 고분들의 경우에는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봉분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 규모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높고 낮은 지형을 평탄화한 모습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중앙고분군의 경관이 현대에 이르러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경관이 백제시대 경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당시의 경관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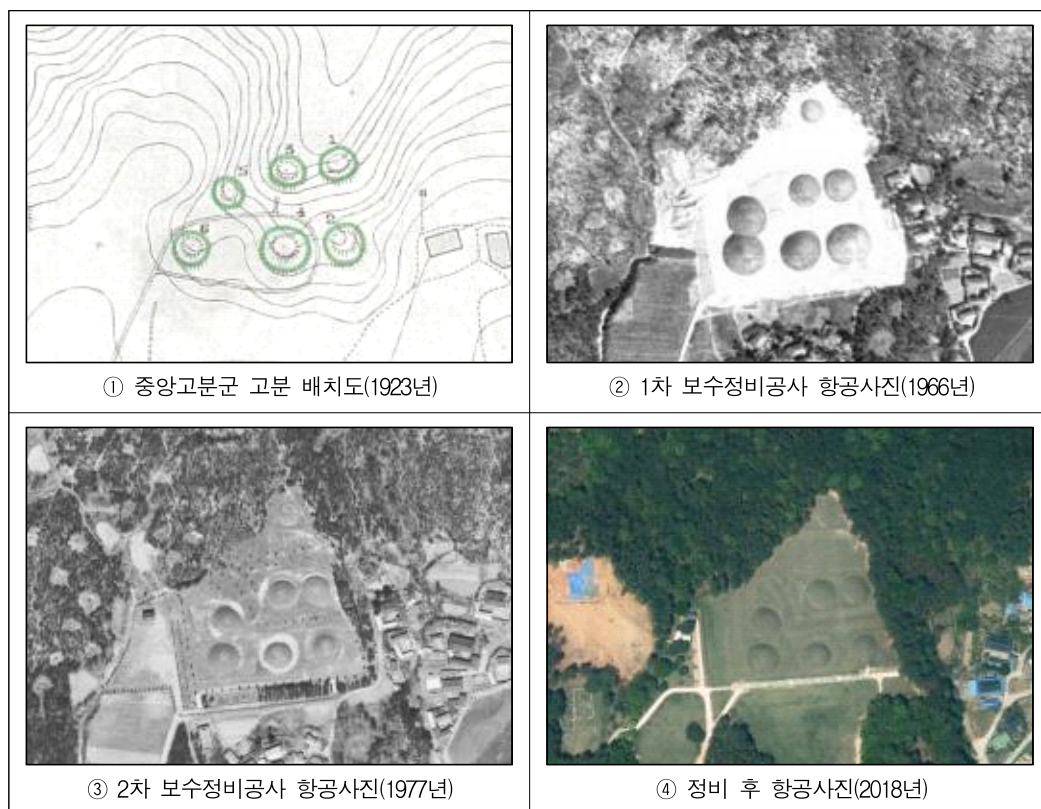


사진 3. 부여 왕릉원 경관의 변화(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에서 재인용)

부여 왕릉원의 재조사는 이러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고분의 본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앙고분군의 지하물리탐사를 통해 지하 구조물을 파악한 결과 현재 정비된 봉분과의 상당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일제강점기 배치도를 검토한 결과와 왕릉원 내 시굴조사 결과도 현재 정비된 봉분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사진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호분의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4호분의 매장주체부는 현재 정비된 봉분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3~4m 치우친 곳에 있음을 파악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 즉, 일제강점기에 작성되었던 배치도가 상당

히 정확하며, 이는 일제강점기 자료가 재조사 단계에서 신뢰할만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진행된 3호분의 재조사에서도 현재 정비된 봉분은 모두 정비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어 백제시대 고분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매장주체부는 정비되었던 봉분의 서쪽에 치우쳐서 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2).

정리하면 사전조사 단계에서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의 활용은 고분의 위치와 규모, 지형의 개변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는 위치 정보가 누락되었던 29호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부여 왕릉원에서는 정비된 봉분의 위치와 규모가 과거와 상당히 달랐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발굴조사 단계에서의 활용

사전조사 단계에서 고분의 위치를 특정하고 이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했다면, 발굴조사 단계에서는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탐색갱을 설치하고 제토를 진행한다.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상황에 따라 계획이 일부 변동되기도 하는데, 이때 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자료가 바로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이다.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 뿐만 아니라 사진 및 도면 등이 보고되어 있어서 재조사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조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장에서는 최근 진행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과 부여 왕릉원 4호분의 재조사에서 일제강점기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활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었던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사 범위와 매장주체부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표 2). 기록에 따르면 조사 당시 29호분은 이미 봉분을 비롯한 석실의 상부와 묘도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조사는 곧바로 하강제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구조적 특징이 파악되어 조사를 계획하는데 활용된다(사진 4). 2021년에 진행된 재조사는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특정한 29호분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탐색갱을 설치하여 하강제토를 진행하였다. 먼저 후대 정비층을 걷어내면서 굴광선과 북·서벽에 노출된 일부 석재를 확인한 후 일제강점기에 보고되었던 기록을 참고하여 제토를 진행하였다. 29호분 내부에 쌓인 흙은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에 다시 채워진 것들이어서 29호분의 매몰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제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사진에서 현실의 벽은 할석을 쌓아 올린 후 바깥에 회를 칠하여 마무리한 상황이 확인되어, 재조사 과정에서 회가 박리되지 않도록 강화처리 등을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1933년) 조사 사진	현재(2021년) 조사 사진
	
	
	
	

사진 4.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 조사현황 비교
(국립공주박물관 20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a)

이러한 재조사 결과는 일제강점기 조사기록과 비교할 때 대체로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오히려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동벽의 일부와 연도의 천장석 등이 후대 정비로 인해

훼손된 상태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의 남쪽 끝 부분도 훼손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김환희·이나은 2021b: 355-359).

다음으로 부여 왕릉원 4호분의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고분들에 비해 그 내용이 상당히 소략한 편이어서 4호분의 당시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사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재조사는 일반적인 고분의 조사 방법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다만 현재 정비된 봉분의 위치가 백제시대 봉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주체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하고 조사를 계획하였다.

2021년에 진행된 재조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는 먼저 정비된 봉분을 대상으로 독을 설치한 후 정비층을 걷어내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정비층을 걷어내자 동북쪽에서는 백제시대 잔존 봉분을 확인하였고, 동남쪽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사했던 굴광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사진에서 확인되었던 호석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제토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호석과 관련된 석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석재가 빠졌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아 정비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봉분의 서북쪽 일대에서 석재를 호상으로 배치한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정비과정에서 시설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매장주체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 굴광선을 따라 하강제토를 진행한 결과 당시 조사는 연도 앞쪽의 묘도 일부까지 제토한 이후에 연문과 현문을 열고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흔적은 사진에서 관찰되는 양상과도 일치하여 당시 조사방법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진에는 현실의 상부에 도굴갱이 확인되어 일제강점기 조사 이전에 도굴이 이루어졌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번 재조사에서는 도굴갱을 석재로 막았던 흔적도 파악되어 조사가 완료된 이후 마무리하는 모습의 일면도 보여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본 연문의 폐쇄상태를 보면 연문을 막은 후 돌을 앞쪽에 쌓아 마감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연문과 현문 역시 조사를 완료한 후 다시 폐쇄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다(사진 4). 한편 일제강점기에 묘도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재조사에서는 묘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묘도의 구조와 관련 시설 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

정리하면 발굴조사 단계에서 일제강점기 조사기록 활용은 재조사 방법과 방향을 선택하고 조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유구를 안전하게 조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은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이 잘 남아 있어서 당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유물을 수습하는 등의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부여 왕릉원 4호분은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이 매우 적은 편이었지만 일부 사진자료들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흔적을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1917년) 조사 사진	현재(2021년) 조사 사진
	
	
	
	
	

사진 5. 부여 왕릉원 4호분 조사현황 비교
(朝鮮總督府 19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b, 2022)

IV. 맺음말 -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

고고학 조사·연구에서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며, 향후 논지를 전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여기서 기초자료라 함은 고고·역사·자연·지리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인 자료는 유적과 직접 관련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진행되었던 고적조사사업의 기록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초자료이다.

백제 웅진~사비기의 왕릉원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과 부여 왕릉원의 조사도 일제강점기에 처음 진행되었다.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용도 소략한 편이어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동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조사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계획과 주도가 아닌 일본인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되었던 백제 고분의 조사자료에 대한 재보고서 발간이 진행되고 있다. 재보고서 발간은 기존에 보고되었던 자료를 재검토하고 분석하여 조사 당시 유적의 모습을 추정하고 조사내용을 보완하는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된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은 해당 유적을 재조사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된다. 최근 진행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과 부여 왕릉원 4호분의 재조사에서도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의 활용은 사전조사 단계에서부터 진행되었다. 과거에 기록한 도면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고분의 위치와 규모 등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 등과의 정합 과정을 거쳐 고분의 위치와 규모를 특정하였다. 이처럼 고분 조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발굴조사 단계에서도 당시 도판사진들을 통해 조사 방법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과거에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과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인지하여 현 단계에서 보완 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자료는 발굴조사 전 단계에 걸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은 잠시 뒤로하고 다시 진행되는 재조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일제강점기 조사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공주박물관, 2014, 『송산리 1~3호분 재보고서』,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12輯.
_____, 2015, 『송산리 4~8·29호분 재보고서』,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17輯.
_____, 2017, 『송산리고분군 수습 유물 재보고서』,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25輯.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0, 「부여 능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_____, 2021a, 「공주 송산리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21b, 「부여 왕릉원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집」.
_____, 2022, 「부여 왕릉원(3호분)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집」.
국립부여박물관, 2018, 『부여 능산리 1호분(東下塚)』,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29輯.
_____, 2019, 『扶餘 陵山里 東古墳群』,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32輯.
국립전주박물관, 2015, 『益山 雙陵』, 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16輯.
국립중앙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5집.
김환희·이나은, 2021a, 「백제 왕릉의 조사와 정비 현황 검토」, 『文化財』54,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21b, 「송산리 29호분의 시기와 계통에 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2021-3, 한국고고학회.
김환희, 2022, 「백제 연화문수막새 변화의 시작과 전개」, 『불교문화로 이어지는 백제와 남조 사원의 새로운 인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3,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부여군, 2017, 『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 기록화사업 I』.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 『익산 쌍릉』.
尹根一, 1988, 「공주 송산리 고분 발굴조사 개보」, 『文化財』21, 국립문화재연구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최희수·박준형·이찬희, 2021, 「송산리고분군 일대의 지반탐사 및 해석」, 『베일에 싸인 백제사의 열쇠 공주 송산리고분군』, 무령왕릉 발굴조사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공주 송산리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A·D지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9, 『부여 능산리 고분군 I -서고분군-』.
_____, 2020, 『부여 능산리 고분군 II -서고분군-』.
_____, 2022, 「부여 왕릉원 동고분군 9차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 자료집」.

【Abstract】

Review and Use of Research Data on Tomb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Compared with the Latest Re-examination of Baekje(Baekche) Royal Tombs –

Kim Hwanhee*

The investigations of the Tomb of King Muryeong(the Tomb of King Muryŏng) and the Royal Tombs in Gongju and the Royal Tombs in Buyeo(Buyŏ), which were carried out as part of the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undertake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represented the first full-fledged investigations of Baekje(Baekche) royal tombs of the Ungjin and Sabi periods. Although only a small number of records remain, as systematic investigations could not be carried out due to the short length of time, they can still be regarded as the most direct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the time. The re-reporting of survey data on ancient Baekje(Baekche) tombs obtain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as taken place recently. This is an important endeavor, in which the re-examina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can be used as reference in restoring the appearance of tomb remain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survey record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were used from the pre-investigation stage when undertaking the recent re-investigations of the Tomb of King Muryeong(the Tomb of King Muryŏng), Tomb No. 29 among the Royal Tombs in Buyeo(Buyŏ), and Tomb No. 4 among the Royal Tombs in Buyeo(Buyŏ). The approximate location and size of the tomb mounds were estimated through drawings and photographic data, and the exact location and size of the mounds were specified by matching them with the data from current numerical topographic maps and aerial imagery. In addition, even during the excavation stage, the survey records were used to set the methods and direction of investigation. The survey records act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quickly recognizing what was overlooked during investigations in the past, as well as for identifying areas what were not investigated in the past,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carry ou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t this stage.

The fact that data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can be used in such a positive and productive way throughout the pre-excavation phase demonstrates that it is necessary to leave behind negative views and actively use the survey record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o ensure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re-investigations that are again underway.

Key words : Japanese occupation period, Gongju, Buyeo(Buyŏ), Royal Tombs, use

* Associate Curator, Baekje Royal sit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ivision

